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혼자보다 '같이'의 '가치' TBS 밴드동호회

'일야조비' 오늘의 근무는 음악입니다♬♪

글. 김진서 TBS 라디오기술팀 기술감독

아침에 회사로 출근해 온종일 일하다가, 일 끝나면 집에서 잠들기 바쁘고, 눈뜨면 다시 아침, 다시 출근...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삶, 지겹지 않은가요?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하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힘이 생기고 일도 잘되는 법입니다. 혼자서 취미활동을 시작하여 꾸준함을 갖기 어렵다면 사내 동호회나 직장인 동호회에 발을 디뎌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밀감도 높여주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같은 회사이다 보니 서로의 고민도 비슷하여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에게 잠시나마 기분전환을 해주고 팍팍한 회사 생활 속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내 동호회입니다.

사내 동호회가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을 두 가지 들자면, 직장 동료들 간 자연스럽게 친근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즐거움도 분명한 직장인 동호회! 워라밸이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몸과 마음의 힐링은 물론 자기 개발의 시간도 되니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TBS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불허전 동호회가 존재합니다. 사내 밴드동호회, 팀 이름은 '일야조비'입니다. 방송국이라 하면 초를 다투는 시간 속에서 최종의 결과물을 만들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 만든 밴드동호회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순간 바로 힐링이 됩니다. 우리 회사 사내 밴드 '같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야조비'를 소개합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밴드를 꿈꾸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습하기엔 직장이 아쉽고, 취미로 하기에는 타고난 리듬감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럴 때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회사 밴드동호회입니다.
직장인 밴드동호회는 한 직장 내에도 존재하지만 먼저 자신의 실력과 좋아하는 장르에 맞는 밴드를 선택해 서로 도우면서 즐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드럼, 키보드, 앰프, 마이크는 합주실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드럼 스틱, 기타, 베이스 같은 손 악기는 개인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도 아닌데 지나친 악기 욕심은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밴드동호회를 하면서 악에 대한 열정도 해소하고, 멤버들 간의 화합도 배워가며 더 없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답니다. 실력만 쌓이면 공연도 하고, 자작 음반도 낼 수 있죠. 직접 작곡한 곡으로 대회도 참가할 수 있으니 독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실력을 쌓아보면 어떨까요?

'일야조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우리 밴드는 2012년 말 겨울부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약간의 일탈을 꿈꾸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것이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같은 취미로 만나면 더 재미있는 회사생활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함께 방송을 제작하면서 만나 밴드에 들어오게 된 타 부서 사람들과도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다가 사내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팀이름이 '일야조비'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세요. 처음 밴드를 결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팀명 정하기였어요. 마지막에 두 가지의 후보로 좁혀졌는데 '남산2터널'과 '일야조비'로 좁혀졌습니다. 팀명이 '일야조비'인 이유는 처음 주축 멤버들이 방송기술본부 소속 교대 근무자들이라 이들의 근무 형태인 일근, 야근, 조근, 비번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재미있죠?

모임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모이기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모이진 못합니다. 요즘은 모이는 것조차 힘든 시기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워 가끔 합주실에서 연습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내 행정 포털에 자유게시판에 가끔 우리 밴드의 노래를 녹음해 올려놓아 회사 직원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전해줍니다.

동호회 활동이 회사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 도움이 되죠! 회사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완벽한 방송제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스트레스가 시작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아요. 이런 지친 몸을 이끌며 합주실에서 동호회원분들과 연주를 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면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순간 해소되는 기분입니다. 누군가는 힘들면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지만 재미 붙인 동호회가 있다고 그곳이 휴식 공간이고 동호회원

들과 대화를 나누며 합주를 하는 그 순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혼자보다 아름다운 '같이'의 '가치'랄 까요?

밴드동호회는 이래서 좋다!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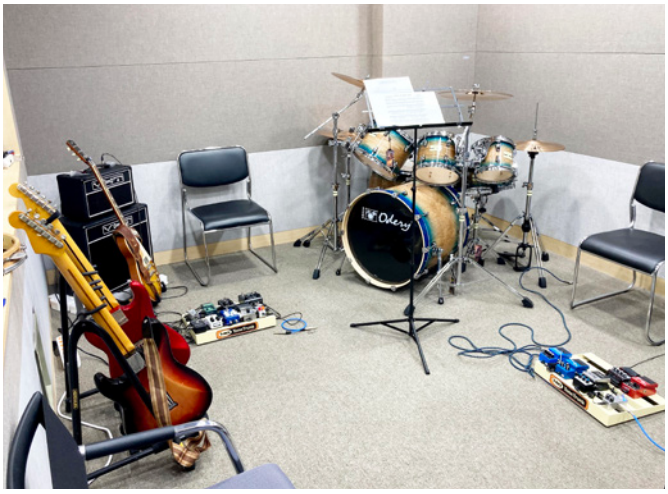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데 그중에 여섯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1. 같은 취미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잊지 못할 순간을 더욱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한다.
2. 회사, 집, 술자리를 벗어나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음악으로 정을 쌓는 밴드동호회
3. 마음이 따뜻한 동호회원들과 저마다의 연주를 편하게 공유하고 감상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친목을 쌓을 수 있다.
4. 연대감, 소속감이 생기고 사회성이 강화되며, 타 부서와 업무적 교류나 도움이 가능해진다.
5. 일정계획에 따라 연습이나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한 울타리, 동료나 친구라는 느낌이 생기고 인간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며 가끔이지만 애경사 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경향이 있다.
6. 똑같은 일상으로 인한 나태함을 멀리하고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에 아주 효과적이다. 매일 같은 일상의 지루함속에도 이 시간만큼은 마음 편하게 좋은사람들과 좋은 시간보내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다.

동호회 활동에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일단 제일 큰 힘든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모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멤버들이 저마다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교대 근무자들이 많다 보니 함께 모여서 연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원래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연습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은 물론이고 두 달에 한 번 합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드물게 함께 연습하는 시간 이외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연습하여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음악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것으로 모인 사람들이지만 각자 원하는 음악이 다릅니다. 서로 추구하는 음악이 다르고 장르를 비껴가게 되어 결국엔 멤버들이 함께 밴드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곡을 선정할 때 모든 멤버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곡을 연주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멤버들과 음악 얘기와 계획을 세워 해봐야겠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부터 해방되어 그 날을 축하하는 공연을 여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내 동호회를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주변에 동호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한 가지 하나의 동호회를 오래 해야 할까? 동호회 활동에 슬럼프가 온다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취미활동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동호회'와 '슬럼프 극복'은 맞지 않는 말인 거 같아요. 동호회는 단지 취미로 하는 개념이니까요. 당연히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그만두는 것이 맞아요. 주변에 동호회를 짧게 하거나 쉽게 질려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나 가입 자체를 쉽게 하더라고요. 반드시 동호회를 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할 거라면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그 동호회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재밌고 즐겁게 동호회 활동을 오래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 밴드동호회는 단체 활동이고 건전한 취미입니다. 연주 중에 실수 또한 즐기면서 하는 것이 동호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일야조비 밴드는 음악을 즐기기 위한 동호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공연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즐겁게 연주하고 음악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답답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음악을 통해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일야조비' 많이 사랑해주세요.